

번호: OP-F-008					
제 목	BMI와 유방암 발생의 관련성 The association between body mass index and breast cancer incidence :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Study (KMIC)				
저 자 및 소 속	임선미1), 강대룡2), 김현창2), 서 일2) 1)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n Mi Lim1), Dae Ryong Kang2), Hyeon Chang Kim2), Il Suh2) 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역 학 [암]	발 표 자	임선미	발 표 형 식	구 연
<p><b>목적:</b>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식생활습관이 서구화로 변해가면서 육류섭취가 많아지고, 흡연, 음주, 운동부족, 출산기피 등의 원인들이 있다. 여러 유방암 연구 중 비만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키가 크거나 비만인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더 높고, 폐경여부에 따라 이러한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BMI가 높은 사람은 폐경 전 유방암 발생이 낮고, 폐경 후 유방암 발생이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KMIC 자료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BMI와 최초 유방암 발생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p> <p><b>방법:</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1990년의 건강검진, 1992년의 설문조사 등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2년마다 현재까지 건강검진과 설문조사, 매년 발생하는 입원이용자료와 사망 자료를 결합하여 만든 자료인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KMIC) Cohort (1990-2002)를 이용하여, 50세 미만, 50세 이상 여성에서 최초 유방암 발생을 기준으로 Baseline 시점(1990-1992)에서 BMI와 1993-2002년에 유방암 발생과 관련성을 보았다. 1993-2002년 총 607건의 최초 유방암이 발생하였다. 분석은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실시하였다.</p> <p><b>결과:</b> KMIC 대상자 총 64120명 중 1993-2002년 총 607건의 최초 유방암 발생 중 50세 미만 여성 유방암 발생 510건, 50세 이상 여성 유방암 발생 97건이었다. 연령, 육류섭취, 규칙적인 운동상태, 자신의 건강상태, 결혼상태 등을 보정한 분석 결과에서 50세 미만의 여성에서 BMI 18.5 ~ &lt;23kg/m<sup>2</sup>를 정상군으로 보았을 때, BMI가 23 ~ &lt;25kg/m<sup>2</sup>인 과체중군 RR=0.83(95% CI: 0.66-1.11), BMI가 25kg/m<sup>2</sup>이상 비만군은 RR=0.81(95% CI : 0.56-1.14)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았고, 반면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군 RR=1.22(95% CI : 0.81-2.26), 비만군은 RR=1.59(95% CI: 0.85-2.82)로 유방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p> <p><b>결론:</b> 50세 미만 여성은 BMI와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았고, 50세 이상의 여성은 BMI와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났다.</p>					